

학교사회복지 관련 조직간 네트워크의 특성에 관한 연구 I*

서울시 강서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이 혜 원

(성공회대학교)

우 수 명

(성공회대학교)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대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조직들이 서로 어떻게 도움을 주거나 받고 있으며, 이들 조직간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구축되었고, 구축된 네트워크의 과정적·구조적 특성은 어떠한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 강서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 관련된 조직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UCINET 6.29를 이용하여 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개별조직이 연계한 상대조직 수는 평균 5.67개이며, 연계 사업 수는 평균 11.83개로 나타났다. 연계내용은 공동사업, 정보교환, 클라이언트 의뢰, 자원교환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네트워크가 협력단계에 이르렀으며, 담당자의 연계 만족도는 평균 3.77점(5.0점 만점)으로 측정되었다. 이 지역 내 네트워크가 특정 조직유형에 치우쳐 유유상종하거나 소외되는 조직이 없이, 비교적 다양한 조직 간에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사회복지조직이 네트워크의 중심조직으로 나타났다. 교육조직은 교육복지시범사업의 창구로서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조직간 정보공유를 통한 연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학교사회복지, 네트워크, 과정적 특성, 구조적 특성, 중심조직

1. 서 론

최근 들어 빈부 격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05년 5월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층이 5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연합뉴스, 2005.5.26), 이것은 곧 전체

*이 연구는 2005년도 성공회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인구 4천829만4천명을 기준으로 9.7명당 1명이 빈곤층임을 의미한다. 한편 상위 10%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하위 10% 가구의 18배, 사교육비 지출은 7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통계청, 2005). 특히 소득 격차로 인해 저소득층의 월 평균 교육비 8만5645원이 고소득층 교육비 59만8654원의 7배 이하라는 사실은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이 빈곤을 세습할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한다. 즉 경제적 불평등은 곧 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계층간 불평등도는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심화되어 왔으며, 2005년 현재 오히려 악화되었다(김정식, 2005; 이해영, 2005).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를 양극화함으로써 사회적 평등과 통합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빈곤의 대물림을 초래하여 사회복지 급여에 대한 의존인구를 증가시킴으로써 사회 비용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일자리를 만들어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여 소득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보장정책을 통해 빈부 격차를 단계적으로 줄여 감과 동시에 보다 장기적으로는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기 위한 공교육제도의 개선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다. 아동이 비록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교육의 출발점부터 발달 단계별 신체·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받음으로써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은 것은 물론 즐거운 학교생활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여 사회보장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부터 서울과 부산 8개 지역(초등·중학교 45개교)에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하 교육복지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2005년에는 서울과 5개 광역시 15개 지역(초등·중학교 82개교)으로 확대하였다(김원찬, 2005).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가구주 교육 수준, 기초자치단체별 1인당 지방세 납부액을 기준으로 교육·복지·문화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아동의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교육·복지·문화 영역에서 가정-학교-지역사회간 네트워크(network)를 구축하는 것이 이 사업의 추진 전략이며, 이를 위해 특별히 지역교육청에는 프로젝트 조정자를, 단위학교에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를 각각 선발·배치하였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단위에서는 지원협의회를 각각 설치하고, 지역 단위에서는 운영협의회와 학교간 연계체계, 그리고 학교와 복지·문화 관련 조직간 연계체계를 구성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실시된 시범사업(2003년~2004년)에 대해 학생의 95.3%, 학부모의 97.7%, 교사의 90.7%, 행정가의 93.7%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실제로 무단결석을 감소, 성적 향상, 자아존중감 향상, 문제행동 감소, 정밀검사에 의한 질병 예방 등 사업의 효과성이 검증되었다(이해영, 2005). 한편 시범사업의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김영삼(2003, 2004)은 지역 교육청의 행정라인을 통한 단위학교에서의 사업 집행의 어려움, 교육행정 관행으로 인한 행·재정체계의 경직성, 지원협의회·운영협의회의 형식적 역할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의 핵심 전략인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은 당위에 머물렀고, 모든 사업은 학교 단위의 사업으로 수립되고 집행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2004a)도 지역의 인프라 부족, 외부 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 학생 의뢰의 책임성 문제, 지역단위 운영협의회의 형식성 등을 지적하면서 지역사회 내 연계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각 평가의 주체·시기·대상지역·방법에 있어서 차이

가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시범사업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검증된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핵심 추진체계인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연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결과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실제로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고, 중심조직은 무엇이며, 구축된 네트워크의 관계 양상은 어떠한지를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교육복지사업의 핵심 전략이 네트워크의 구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러한 접근은 시도되지 않았다. 또한 국내외 사회복지학계에서도 학교사회복지 관련 조직간 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아직 한 편도 없다. 다만 관련 선행연구로서 한국교육개발원(2004a, 2004b)은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해 각각 서울과 부산 지역 내 학교사회복지 관련 조직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실태와 특성을 4가지 영역(조직 현황, 인지도와 참여도, 참여 가능성, 조직 의견수렴)으로 나누어 기술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UCINET 6.29를 사용해 조직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대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에게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지역사회 내 조직들이 서로 어떻게 도움을 주거나 받고 있으며, 이들 조직간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구축되었으며, 구축된 네트워크의 과정적·구조적 특성은 어떠한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복합적 욕구를 지닌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과 부모를 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학교사회복지 관련 조직간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구축된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연구문제 1. 교육복지사업 담당자의 특성은 어떠한가?
- 2) 연구문제 2. 교육복지사업 관련 조직의 특성은 어떠한가?
- 3) 연구문제 3. 교육복지사업 관련 조직 간에 형성된 네트워크의 특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1-1. 지역 내 학교사회복지 관련 조직이 연계한 상대조직의 수는?
 - 3-1-2. 개별 조직이 상대조직과 연계한 내용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3-2-1. 네트워크의 밀도는 어떠한가?
 - 3-2-2. 네트워크의 중심조직은 무엇인가?
 - 3-2-3. 네트워크의 관계 양상은 어떠한가?

2. 이론적 배경

1) 학교사회복지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학교사회복지는 사회복지의 한 실천분야로서 학교를 실천 장소로 하여 학생-가정-학교-지역사회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초래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학교에 적응하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를 통해 학교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다(NASW, 2002; 한인영·홍순혜·김기환, 2004).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제가 학생의 욕구와 가정·학교·지역사회환경간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 생태체계적 관점이다. 따라서 학교사회복지사의 주요 역할은 학생의 욕구를 중심으로 가정-학교-지역사회간의 일차적 연계자로서 활동하면서, 교사는 물론 학교사회복지 관련 전문직들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다(Allen-Meaers, 2004).

이러한 학교사회복지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교육복지, 학교복지, 학생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등이 있다. 특히 교육복지는 교육과 사회복지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홍봉선, 2004). 이 연구에서는 사회정의와 교육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와 교육을 연계시켜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해 온 영국의 복지국가 경험¹⁾에 근거하여, 교육을 사회복지의 하위 개념으로 설정하면서도 사회복지의 수단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사회복지의 한 실천영역으로서 전체 국민의 교육적 욕구를 평등하게 충족시키고 동시에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원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교육복지는 학교사회복지의 기본 실천관점을 공유하면서도 실천대상이 더 넓기 때문에, 학교사회복지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즉 교육복지는 학생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평생에 걸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교육 현장에서 전개되는 교육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포괄한다. 이러한 개념에 근거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소득계층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 중·고등학생 수업료 지원, 대학생 학자금 융자 등 경제적 보조에 중점을 둔 대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저소득층의 교육조건과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보다 통합적인 교육복지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2년 7월과 8월 관계부처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한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도시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교육·복지·문화가 연계된 교육복지사업을 수립하기로 합의하여 12월에 최종 발표하였으며, 2003년 4월과 7월 부산과 서울에 지역사회교육전문가를 선발·배치하면서 이 사업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3). 따라서 이 사업에서는 현재 교육복지의 대상을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일정 연령의 아동으로 제한함으로써 본 연구자가 정의한 교육복지 개념보다는 협의의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향후 단계적으로 대상 지역과 인구를 확대한다면, 궁극적으로 전체 국민의 교육적 평등과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학교사회복지 관련 조직간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우리나라 아동의 빈곤율을 분석한 류연규·최현수(2003)에 의하면, 2002년 현재 전체 아동 157만명

1) 정부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구상하면서, 영국의 교육우선지역(Education Action Zone)과 프랑스의 교육우선지구(Zones d'Éducation Prioritaires)를 주로 참조하였다.

가운데 9.8%인 113만명 이상이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서론에서 언급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빈곤율과 거의 일치한다. 더구나 아동의 빈곤은 교육 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구인회, 2003; 이소희·도미향·정익중·김민정·변미희, 2005). 일반적으로 빈곤가정의 부모는 일정한 수준의 생계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부모처럼 자녀에 대한 교육열은 높더라도 자녀교육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이 높지 못하고, 자녀의 건강이나 영양섭취에 대해서도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빈곤아동의 학습의욕이 낮고, 학습준비도가 낮고, 학업성취도도 낮게 된다. 실제로 저소득층 밀집지역 초등학교의 기초학습부진 아동 수가 다른 지역 초등학교보다 46배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교육개발원, 2004a). 또한 이혜영(2002)은 저소득층 아동 가운데 35.9%가 최근 6개월 간 각종 질병이나 사고로 아팠던 적이 있으며, 이들의 38.0%는 치료를 받지 못했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저소득층 가정은 빈곤으로 인한 가족갈등, 이혼, 가족해체 등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가족 기능의 약화는 아동으로 하여금 불안, 위축, 낮은 자아존중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다양한 문제행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일반가정의 아동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사실이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확인되었다(이인재, 2003; 이소희 외, 2005). 박은미·장신재(2005)는 중식지원 대상 아동의 59.4%가 한부모가정, 14.0%가 조손가정임을 확인하였으며, 휴일 또는 방학 중 혼자 있는 시간이 평균 4.17시간으로 주중에는 이보다 더 긴 시간을 보호자 없이 혼자 지내고 있고, 전체 아동의 55%가 비행 행동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런데 저소득층 지역의 교사들은 업무 부담 등으로 학생들과 접촉할 기회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에는 주 5일제 수업과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인하여 주말이나 방과후 학생들의 직업체험이나 문화체험 등에 대한 욕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욕구는 이제 가정이나 학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에서 다양한 기관이나 시설, 단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충족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빈곤가정 아동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부모의 역할 등 가족 기능을 강화시켜 아동의 학교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언제나 건강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연계하여 경제적·교육적·의료적·정서적·사회적 지원을 통합적이며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육복지사업의 목표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기초로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지원망을 구축하여 아동의 학습결손을 보충·예방함으로써 학력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시킴으로써 아동의 신체와 정서의 발달을 증진시키며,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특히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한 이유는 지역사회 내 학교사회복지 관련 조직들이 대상 아동을 위한 지원의 중복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단위 조직의 정보·인력·설비 등 자원의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도를 최대화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은 우리 사회에서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의 후원금이 점차 감소하여 사회복지 조직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제한되는 반면에, 경제 위기가 초래한 실업, 이혼, 가족해체 등으로 인해 클라이언트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는 계속 증가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개입 전략으로 인정되어 사회복지 실천분야에서 조직간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들²⁾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3) 사회복지 관련 조직간 네트워크의 특성

연계는 서로 다른 조직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의미하며, 네트워크는 조직과 조직 간에 형성된 연계의 체계를 의미한다(Wasserman and Faust, 1994). 네트워크의 특성과 관련하여 학자들마다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반드벤과 페리(Van de Ven and Ferry, 1980)는 네트워크의 특성을 과정적 특성과 구조적 특성으로, 노크와 쿠크린스키(Knoke and Kuklinski, 1982)는 내용과 형태로, 스트리터와 길레스피(Streeter and Gillespie, 1992)는 관계적 특성과 구조적 특성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각각 표현한 과정적 특성, 내용, 관계적 특성은 공통적으로 연계내용(조직 간에 무엇이 교환되었는가?)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관점의 차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반드벤 외(1980)의 이론에 근거하여 네트워크의 특성을 과정적 특성과 구조적 특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인 교육복지사업이 2003년부터 실시되기 시작하여 2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초기 형성 과정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1) 네트워크의 과정적 특성

과정적 차원의 네트워크는 조직과 조직 간에 주고받는 자원의 흐름과 관련된 것으로서 조직들 간에 형성된 연계의 양과 내용을 측정함으로써 네트워크의 과정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연계의 양은 개별조직 내 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역사회 안에서 연계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상대조직의 총 수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조직간 네트워크의 연계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연계내용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우다드와 도리안(Woodard and Doreian, 1994)의 관점에 근거하여 정보교환(자료-조언 제공 등), 클라이언트(대상아동-청소년) 의뢰, 자원교환(정보를 제외한 인적·물적 자원의 교환), 공동사업(공동사업계획, 공동사업 수행, 공동사업 평가 등)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프랭클린과 스트리터(Franklin and Streeter, 1995)는 학교와 지역사회 조직이 형성하는 네트워크의 발전 과정을 학교와 조직간 연계된 내용을 기준으로 비공식 단계, 조정 단계, 동반자단계, 협력단계, 통합단계로 구분하고 있다.³⁾

- 2) 관련 선행연구로는 노인복지서비스 기관들의 관계망을 분석한 연구(정순돌, 1997), 장애인복지 관련 조직간 관계를 분석한 연구(이현주, 1998),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네트워크 모형을 개발한 연구(김인숙 외, 1999), 전북지역 실업극복 관련 단체간 네트워크를 분석한 연구(홍경준, 2000), 지역단위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모형을 개발한 연구(이현주 외, 2000), 부천시 지역 재가노인사례관리 네트워크를 분석한 연구(정순돌, 2001), 전주지역 자활 관련 조직간 네트워크를 분석한 연구(홍경준, 2002), 결식아동 지원조직간 네트워크를 분석한 연구(이혜원, 2002), 부천시 지역 여성복지 관련 조직간 네트워크를 분석한 연구(김인숙 외, 2003) 등이 있다.
- 3) 비공식단계에서는 학교사회복지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학생의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부모, 학교, 지역사회로부터 정보와 자료를 수집한다. 조정단계에서는 학교사회복지사가 가정-학교-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사례관리자로서 지역사회의 지원 증진을 조정하고, 가정-학교-지역사회간 갈등을 최소화한다. 이때에 학교 행정가와 회의, 학교와 지역사회간 공식적 연계 시도, 지역사회 조직화가 이루어진다. 동반자단계에서는 지역사회복지관에 소속된 학교사회복지사가 학교에서 성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경우, 교사는 프로그램의 시간, 장소, 보조인력 등을 배치하여 주는 등 동반

(2)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

구조적 차원의 네트워크는 개별조직에서 근무하는 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중심으로 상대 조직과 연계를 형성하는 방법과 관련된 것으로서 조직들 간에 형성된 연계의 밀도와 중심도(매개중심도·근접중심도·다선중심도·위세도)를 측정함으로써 중심조직을 색출하여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Van de Ven 외, 1980; Streeter 외, 1992; Wasserman and Galaskiewicz, 1994). 연계의 밀도는 개별조직의 담당자가 다른 조직의 담당자와 어느 정도 밀접하고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에서 연계가 가능한 모든 조직의 수 가운데 최근 6개월 동안 연계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상대조직 총 수의 비율이다. 따라서 밀도 0은 네트워크 내에서 연계를 하나도 가지지 않은 경우이며, 1은 가능한 모든 연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중심도는 해당 조직이 전체 네트워크에서 갖는 위치를 보여준다. 네트워크의 전체 구조 속에서 중심조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선중심도(상대조직에게 연계를 요청한 빈도)·근접중심도(상대조직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도)·매개중심도(상대조직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위세도(상대조직으로부터 연계 대상 조직으로 선택된 정도)의 값을 산출하여야 한다.

조직간 네트워크의 구조를 파악하는 또 다른 방법은 전체 네트워크의 구조에서 동일한 위치(structural equivalence)를 차지하는 조직, 즉 유사한 연계 양상을 보이는 조직들을 가려내어 묶어보는 방법(block modeling)이 있다(Wasserman 외, 1994). 예를 들어, A 조직이 상대조직과 연계를 맺는 특성이 B조직의 특성과 같다면, 이 두 조직을 구조적으로 같은 위치에 있다고 본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같은 위치에 있는 조직들을 하나의 구획으로 묶게 되면, 많은 수의 조직들을 더 적은 수의 구획으로 요약·정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조직간 네트워크의 구조를 구획간 네트워크의 구조로 단순화할 수 있다(홍경준, 2002). 이러한 방법은 전체 네트워크의 구조적인 양상과 경로 등을 시각적으로 그려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현재 구축된 네트워크의 개선방안은 물론 연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유용하다.

3. 연구 방법

이 연구는 학교사회복지 관련 조직간 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하는 최초의 연구이며, 분석 대상인 교육복지사업의 수행기간이 2년이므로 탐색적 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로서 활동한다. 협력단계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조직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사업을 기획하여 수행하고 평가한다. 통합단계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계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위한 교육과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역사회 안에서 통합되어 일상생활 속의 지속적인 지원망으로서 기능한다(Franklin and Streeter, 1995).

1) 조사대상

현재 교육복지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등촌·방화지역 가운데, 이 연구는 연구목적에 따라 선택하는 목적표집에 의거 본 연구자의 접근성⁴⁾이 높은 가양지역⁵⁾을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는 사회복지관 6개, 교육청 및 초·중등학교 6개, 관공서 4개 등 구체적으로 파악된 25개 조직과 시민사회단체 등 파악되지 않은 11개 관련 조직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들 가운데 교육조직(교육청과 초·중등학교) 6개, 사회복지조직 4개, 공공조직 3개, 청소년조직 3개, 기타 조직(보건의료기관 등) 2개 총 18개 조직이 최종 조사되었다.

2) 표본추출의 방법과 절차

지역 내 사회복지관 및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사회복지 관련 조직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조직 명단을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식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였지만, 명단에 포함된 대상은 지역사회의 모든 조직을 망라하여 이를 모집단으로 선정한 만큼 전수 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설문 초안 완성 후 공동연구원이 2개 조직을 방문하여 심층면접을 통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수정하였다. 본 조사는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 석사과정 3명과 공동연구원이 직접 참여하였으며, 방문 후 면접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방문면접 시간 조절이 어려운 6개 기관에 한하여 이메일 조사 혹은 이메일 발송 후 방문 회수 방식을 병행하였다. 설문문항이 많고 복잡하여 조사기간은 14일로 다소 오래 걸렸다.

4) 본 연구자는 2005학년도 1학기 학부 과정에서 『학교사회복지 심화실습 및 세미나』 과목을 담당하고 있다. 실습생활 가운데 2명이 가양지역 K복지관에서 주 3일 사회복지사의 실습 지도를 받으면서, 주 2일은 교육복지사업 단위학교인 K초등학교와 D초등학교에 각각 파견되어 사회교육전문가의 실습 지도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매주 1시간 이상 본 연구자의 슈퍼비전을 받고 있다.

5) 가양지역은 1980년대 후반 정부가 저소득층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성한 대규모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전체 주택의 51.9%)로서 특히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이 많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다. 한 예로 K 초등학교의 전체 학생 518명 중 487명(94.0%)이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268명(51.7%)이 무료 급식 대상자이다. 또한 120명은 한부모가정, 16명은 조모에 의한 대리양육가정, 7명은 친인척에 의한 위탁가정 등으로 나타났다(강서교육청, 2005).

한편 임대아파트 건설과 함께 단지마다 학교와 종합사회복지관도 설립되었다. 그 결과, 이 지역에서 교육복지사업을 추진하면서 5개 학교, 3개 종합사회복지관, 2개 동사무소가 아동을 중심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그러나 청소년시설이나 단체 등은 짧은 역사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수나 활동이 매우 제한된 상황이다. 지역사회 운동이 선행되어 발전되어 왔다기보다는 주거지역으로 형성되면서 활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직 사업의 출발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04a).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교육복지사업 관련 조직 및 담당자의 특성과 연계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SPSSWIN 12.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다중응답분석을 하였다. 다음으로 교육복지사업 관련 조직의 네트워크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UCINET 6.29를 사용하여 밀도, 중심도(다선중심도·근접중심도·매개중심도·위세도), 네트워크의 관계 양상 등을 연계내용(정보교환·클라이언트 의뢰·자원교환·공동사업)별로 분석하였다. 네트워크 관계 양상의 경우, 동일한 위치 내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획간 역할을 보기 위한 지위 구조 분석과 연계내용별 네트워크의 교환 특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그래프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4. 연구 결과

1) 교육복지사업 담당자의 특성

교육복지사업 담당자는 여자(61.1%)가 남자(38.9%)보다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31.39세(표준편차 4.72)로 30대(50.0%)와 20대(38.9%)의 비중이 높았다. 학력도 대학원(66.7%)이 많았으며, 대다수가 실무급(88.9%)이었다. 청소년지도사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으며, 현 직장경력은 평균 3.30년(표준편차 2.90)으로 2년 이하(50.0%)의 비중이 높았다.

<표 1> 교육복지사업 담당자의 특성(N=18)

특성	구분	빈도(%)	M(SD)	특성	구분	빈도(%)	M(SD)
성별	남자	7(38.9)		직위	중간관리급	2(11.1)	
	여자	11(61.1)			실무급	16(88.9)	
연령	20대	7(38.9)	31.39 (4.72)	자격증	사회복지사1급	17(94.4)	
	30대	9(50.0)			타전문자격증	1(5.6)	
	40대	2(11.1)		현직장경력	2년이하	9(50.0)	
학력	대졸	6(33.3)	3년-4년		5(27.8)		
	대학원	12(66.7)	5년이상		4(22.3)		

2) 교육복지사업 관련 조직의 특성

교육복지사업 관련 조직은 교육조직(33.3%), 사회복지조직(22.2%), 공공조직(16.7%), 청소년조직(16.7%), 기타조직(11.1%)이었다. 설립연도는 대부분의 조직(65.7%)이 1990년대에 설립되어 평균 13.20년(표준편차 10.09)이 되었다. 이것은 곧 이 지역이 1980년대 후반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 조성된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로서 이 곳에서 활동하는 지역사회 기관이나 단체의 역사성이 비교적 짧은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2005년 교육복지사업 지출예산은 평균 2억 7천만원(표준편차 5.78)이며, 비정규직 포함 담당 상근인력 총 수는 평균 4.73명(표준편차 3.49)이었다.

<표 2> 교육복지사업 관련 조직의 특징(N=18)

특성	구분	빈도(%)	M(SD)	특성	구분	빈도(%)	M(SD)
조직유형	교육조직	6(33.3)		2005년 교육복지 지출예산	1천만원미만	3(21.4)	27천만원 (5.78) missing 4 cases
	사회복지조직	4(22.2)			1천-5천만원미만	5(35.7)	
	공공조직	3(16.7)			5천-1억5천미만	4(28.6)	
	청소년조직	3(16.7)			10억이상	2(14.3)	
	기타조직	2(11.1)					
설립연도	1980년이전	2(14.3)	13.20년 (10.09) missing 3 cases	담당 총 상근인력	1명-2명	6(40.0)	4.73 (3.49) missing 3 cases
	1990년대	10(65.7)			3명-6명	6(40.0)	
	2000년이후	3(20.0)			7명이상	3(20.0)	

3) 교육복지사업 관련 조직간 네트워크의 특성

(1) 네트워크의 과정적 특성

① 개별조직이 연계한 상대조직의 수

개별조직이 연계한 상대조직의 수는 평균 5.67개(표준편차 4.28) 조직이며, 10개 이상 연계된 조직도 4개(22.2%)가 있었다. 학습·문화·정서·복지·평가 영역에서 연계 사업 수는 평균 11.83개(표준편차 8.56)로 연계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표 3> 개별조직이 연계한 상대 조직 수 및 사업 수(N=18)

특성	구분	빈도(%)	M(SD)	특성	구분	빈도(%)	M(SD)
연계 상대 조직 수	없음	3(16.7)	5.67 (4.28)	연계 사업수	없음	4(22.2)	11.83 (8.56)
	1-3개	4(22.2)			5-10개	5(27.8)	
	4-9개	7(38.9)			11개-20개	6(33.3)	
	10개이상	4(22.2)			21개이상	3(16.7)	

한편 개별조직이 상대조직과 연계한 사업의 영역별 내용은 다중응답분석으로 사례백분율(percent of cases)과 반응백분율(percent of reponses)이 분석되었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총 응답된 213개의 연계 사업 가운데 정서영역 60개(28.2%), 복지영역 46개(21.6%), 학습 및 평가/행정영역 37개(17.4%), 문화영역 33개(15.4%) 순으로 나타나 정서영역 사업(집단상담, 멘토링, 개별상담)의 연계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 개별조직이 상대조직과 연계한 사업의 영역별 내용(N=14)⁶⁾

영역	빈도(%)	세부 사업내용	빈도	반응%	사례%
학습	37(17.4)	일대일 학습지원	9	42	64.3
		소집단 학력증진 프로그램	9	42	64.3
		학력증진 방학캠프	5	23	35.7
		도서관 운영 활성화	4	19	28.6
		진로지도	10	47	71.4
정서	60(28.2)	특기 적성교육	6	28	42.9
		멘토링, 결연	11	52	78.6
		개별상담	11	52	78.6
		집단상담	13	61	92.9
		가정방문	10	47	71.4
		가족상담, 가족치료	9	42	64.3
문화	33(15.4)	문화, 예술 체험활동 지원	13	61	92.9
		동아리활동 지원	6	28	42.9
		학교내 CA 지원사업	5	23	35.7
		지역축제	9	42	64.3
복지	46(21.6)	방과후교실	9	42	64.3
		건강증진 지원사업	9	42	64.3
		중식지원아동의 학교생활 지원	8	38	57.1
		특수아동의 사회통합 지원	4	19	28.6
		장학금, 후원금	9	42	64.3
		가정도우미 파견	7	33	50.0
평가/행정	37(17.4)	사업수행 평가	11	52	78.6
		클라이언트 만족도조사	10	47	71.4
		교원의 전문성, 인식개선사업	8	38	57.1
		외부사업의 예산, 인력	8	38	57.1
합계	213(1521.4)		213	100.0	1521.4

② 개별조직이 상대조직과 연계한 내용 및 만족도

개별조직이 상대조직과 연계한 내용은 다중응답분석으로 사례백분율과 반응백분율이 분석되었다. 총 응답된 300개의 연계한 활동 내용 중 공동사업이 100개(33.3%)로 가장 빈도가 높았으며, 정보교환 79개(26.3%), 대상자 의뢰 65개(21.7%), 자원교환 53개(17.7%) 순으로 나타나 공동사업과 정보교환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계활동이 실제적인 사업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연계한 내용은 <표 5>와 같다.

6) 연계한 사업이 없거나 무응답한 4개 조직은 제외됨.

<표 5> 개별조직이 상대조직과 연계한 내용(N=13)

특성	빈도(%)	구분	빈도	반응%	사례%
정보교환	79(26.3)	정보교환	79	26.3	607.7
대상자의뢰	65(21.7)	대상자의뢰	65	21.7	500.0
자원교환	53(17.7)	재정자금교환	32	10.7	246.2
		시설기자재지원	12	4.0	92.3
		타사업예산지원	9	3.0	69.2
공동사업	100(33.3)	공동사업계획	25	8.3	192.3
		공동사업수행	46	15.3	353.8
		공동사업평가	29	9.7	223.1
기타	3(1.0)	기타	3	1.0	23.1
합계	300(100.0)		300	100.0	2307.7

연계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활용하는 방식으로는 전화·휴대폰이 5.80회(표준편차 4.23), 대면·방문·면접도 5.67회(표준편차 3.85)로 높게 나타났다. 팩스문서도 평균 4.93회(표준편차 3.28)로 비교적 높았다. 반면에 이메일, 우편, 물품·현금은 상대적으로 적게 활용되었다. 이는 즉각적인 반응이 가능한 전화·휴대폰의 활용도가 높으며, 근거리상에 위치한 조직간 특성으로 대면 등의 방식이 많이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연계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각 조직별 만족도 점수의 평균으로,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이다. 만족도 평균은 3.77점(표준편차 0.70)으로 연계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표 6> 상대조직과의 연계만족도 및 연계방식(N=15)

		평균	표준편차
연계 방식	전화·휴대폰	5.80	4.23
	팩스문서	4.93	3.28
	이메일	2.93	3.37
	우편	1.00	1.96
	대면·방문·면접	5.67	3.85
	물품현금	1.67	2.72
연계만족도		3.77	0.70

(2)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

① 네트워크의 밀도(den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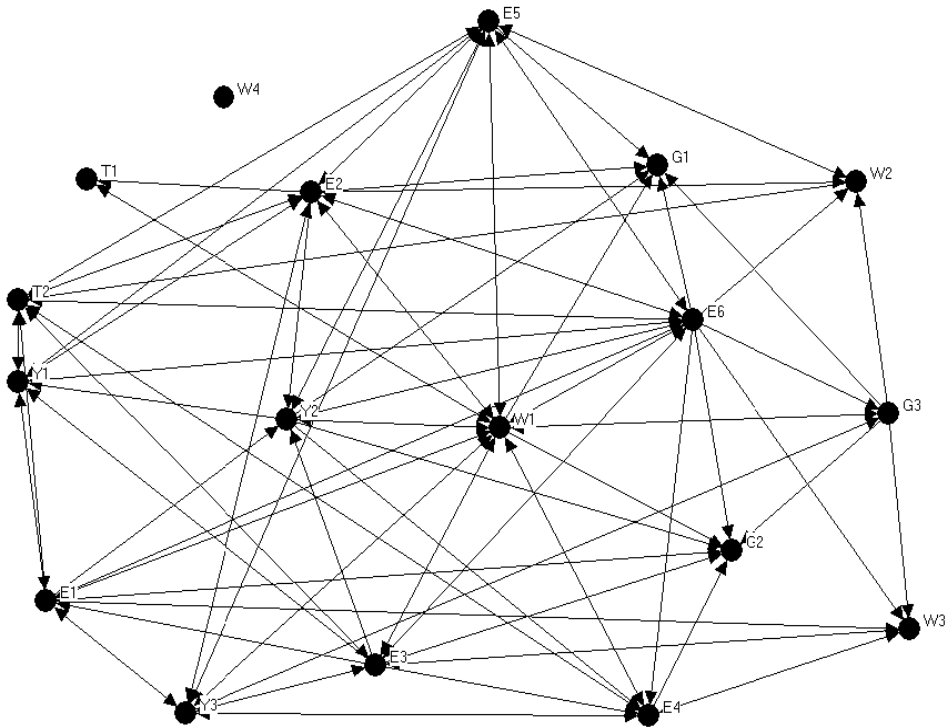
네트워크의 밀도는 지역사회에서 연계가 가능한 모든 조직(사업)의 수 가운데 실제로 직접 연계되

어 있는 조직(사업)의 수를 나눈 비율로 설명될 수 있는데, 조직들 사이의 관계의 정도를 네트워크 상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조망하는 개념이다(Wasserman and Faust, 1994). 관찰된 밀도는 일반적으로 집단의 크기와 반비례한다(김용학, 2004). 사업의 네트워크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은 공공조직1로서 이 지역에서 연계 가능성이 있는 사업 수 총 30개에서 실제로 연계된 사업 수가 22개이므로 밀도는 73.33%가 된다. 다음으로 밀도가 높은 곳은 사회복지조직2이며, 실제로 연계한 사업 수는 20개로 밀도는 65.00%로 나타났다. 상위 7개⁷⁾ 조직 중 공공조직이 3개 중 2개가, 청소년조직이 3개 중 1개가, 교육조직이 6개중 3개가, 사회복지조직이 4개 중 1개가 포함되었다. 네트워크 밀도에 의하여 나타난 관계망은 <그림 1>과 같다.

<표 7> 네트워크의 밀도

	직접연계NW사업수	총 NW사업수	NW 밀도
공공조직1	22.00	30.00	73.33
사회복지조직2	13.00	20.00	65.00
청소년조직1	27.00	42.00	64.29
공공조직2	24.00	42.00	57.14
교육조직5	34.00	72.00	47.22
교육조직4	26.00	56.00	46.43
교육조직3	41.00	90.00	45.56

7) 백중만·홍경준(2001), 김인숙·우아영(2003)의 연구에서는 각 관련 상위조직 5개씩을 제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7개 조직을 제시하였다.



E1-6: 교육조직 W1-4: 사회복지조직 G1-3: 공공조직
 Y1-3: 청소년조직 T1-2: 기타조직

<그림 1> 네트워크의 밀도에 기초한 교육복지사업 조직간 관계망

② 네트워크의 중심도에 기초한 중심조직

가. 다선중심도(degree centrality)

다선중심도는 개별조직이 네트워크 내 다른 조직들과 얼마나 활발한 연계 활동을 했는가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상대조직에게 연계를 요청한 빈도로 측정한다. 그러나 예비조사에서 실무담당자들이 최근 6개월간 요청한 빈도가 100회 이상 등 기억하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응답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반영하여 이 조사에서는 연계를 요청한 빈도 대신에 연계를 요청한 사업 수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개별조직이 상대조직에게 연계를 요청한 사업 수는 발신(out degree), 상대조직으로부터 연계를 요청받은 사업 수는 수신(in degree)을 의미한다. 특히 다른 조직과의 관계에서 자신들이 사업을 주도하는 경우 발신으로 표현되며, 이는 곧 다른 조직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중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발신에 있어서 사회복지조직1이 6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조직1은 수신에 있어서도 교육조직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19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복지조직1이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교육조직2의 경우도 발신이 14로 5번째로 높았으며, 수신은 2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발신의 경우 사회복지조직 및 청소년조직이 많아 사회복지사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이는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부조직으로 적극적인 연계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수신은 교육조직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것은 교육복지사업 자체가 학교를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조직들에 의하여 선택되어지는 수신은 높아지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사회복지조직과 청소년조직의 적극적인 활동과 자원들이 교육조직으로 집중되어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교육복지사업 조직간 다선중심도

발신		수신	
사회복지조직1	67.000	교육조직2	28.000
기타조직2	26.000	교육조직1	27.000
사회복지조직3	25.000	교육조직3	27.000
청소년조직2	16.000	교육조직5	26.000
교육조직2	14.000	교육조직4	26.000
청소년조직3	12.000	사회복지조직1	19.000
교육조직5	11.000	공공조직2	26.000

나. 근접중심도(closeness centrality)

근접중심도는 개별조직이 상대조직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네트워크의 한 조직으로부터 다른 조직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최소 단계의 총합으로 측정된다(김용학, 2004). 따라서 다른 조직에 얼마나 가깝게 있는지를 의미하며 이는 곧 다른 조직과 쉽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조직은 그만큼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신의 경우 공공조직1과 2의 근접중심도가 28.33%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회복지조직1도 27.8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조직2 및 교육조직4, 6, 5도 포함되어 있다. 수신은 교육조직 중 중심체인 교육조직6이 47.22%로 가장 높았고, 사회복지조직1과 교육조직5는 발신에 이어 수신도 높게 나타나 근접중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조직의 근접중심도의 발신성이 높은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며, 교육조직6과 사회복지조직1이 수신성이 높은 것은 이들이 다양한 조직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9> 교육복지사업 조직간 근접중심도

발신		수신	
공공조직1	28.333	교육조직6	47.222
공공조직2	28.333	사회복지조직1	44.737
사회복지조직1	27.869	교육조직2	42.500
교육조직4	23.611	교육조직3	42.500
청소년조직2	22.667	교육조직5	41.463
교육조직6	22.667	청소년조직3	39.535
교육조직5	22.667	기타조직2	39.535

다. 매개중심도(betweenness centrality)

매개중심도는 상대조직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로서 한 조직이 다른 조직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중재자, 즉 매개 역할을 어느 정도하는가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매개중심도가 높은 조직은 네트워크 구조에서 정보의 흐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다른 조직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핵심적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조직이다. 매개중심도가 가장 높은 조직은 적극적으로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조직1로 45.07이었으며, 교육조직 중 구심체 역할을 하는 교육조직6이 24.25로 두 번째로 높았다. 교육조직2, 3, 5가 매개중심도가 높은 조직 안에 포함되어 있어 교육조직이 매개적 활동의 중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육복지사업 자체가 대부분의 교육조직인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안에 여러 조직들이 참여하는 형태를 갖는 경우가 많아 교육조직의 매개중심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분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사회복지조직1이 가장 매개중심도가 높은 것은 이 조직의 적극적인 활동력이 반영된 것으로 학교조직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공공조직과 타조직들과의 연계도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0> 교육복지사업 조직간 매개중심도

	조직의 매개중심도	백분율
사회복지조직1	45.071	16.570
교육조직6	24.248	8.915
교육조직2	16.231	5.967
교육조직3	14.217	5.227
기타조직2	13.574	4.990
교육조직5	9.731	3.578
청소년조직3	7.700	2.831

라. 위세도(degree prestige 또는 Bonacich centrality)

위세도는 다른 조직들로부터 연계의 대상으로 선택된 정도를 의미하며 연계된 상대조직의 중요성에 가중치를 주는 개념이다(김용학, 2004). 네트워크에서 영향력이 큰 중심 조직과의 연계는 영향력이 낮은 다른 조직과의 더 많은 연계보다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는데 더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위세도가 높은 조직은 네트워크에서 효율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김재환, 2004). 위세도의 일반적인 형태로 UCINET에서는 보나시치 중심도를 사용한다. 위세도가 0.374로 가장 높은 조직은 교육조직6으로 네트워크에 가장 효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교육조직6이 교육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사회복지조직1의 경우 0.324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는데, 다양한 조직들과의 연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복지조직1과 청소년조직2를 제외한 나머지 상위조직은 모두 교육조직으로 이들은 네트워크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교육복지사업 조직간 위세도

	위세도	백분율
교육조직6	0.374	52.882
사회복지조직1	0.324	45.871
청소년조직2	0.301	42.523
교육조직3	0.288	40.768
교육조직2	0.264	37.352
교육조직1	0.264	37.334
교육조직5	0.257	36.392

③ 연계내용별 네트워크 관계 양상

가. 정보교환 네트워크 관계 양상

조직간 상관관계가 수렴할 때까지 반복 실행하여 구획(block)을 만드는 CONCOR(김용학, 2004)를 이용하여 정보교환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나타난 4개의 구획은 <표 11>과 같다. 1구획은 교육조직 1, 2, 3, 4, 5와 기타조직1이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조직간 정보공유의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구획의 경우 청소년조직2, 교육조직6, 공공조직3 등 각 조직영역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비교적 광의적 조직들이 포함되었다. 비교적 네트워크에 적극적인 사회복지조직1, 3은 3구획에 공공조직2와 청소년조직1과 함께 포함되어 있으나 <그림 2>와 같이 직접적 관계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4구획의 경우 정보교환에 별로 적극적이지 않는 조직들이 주로 포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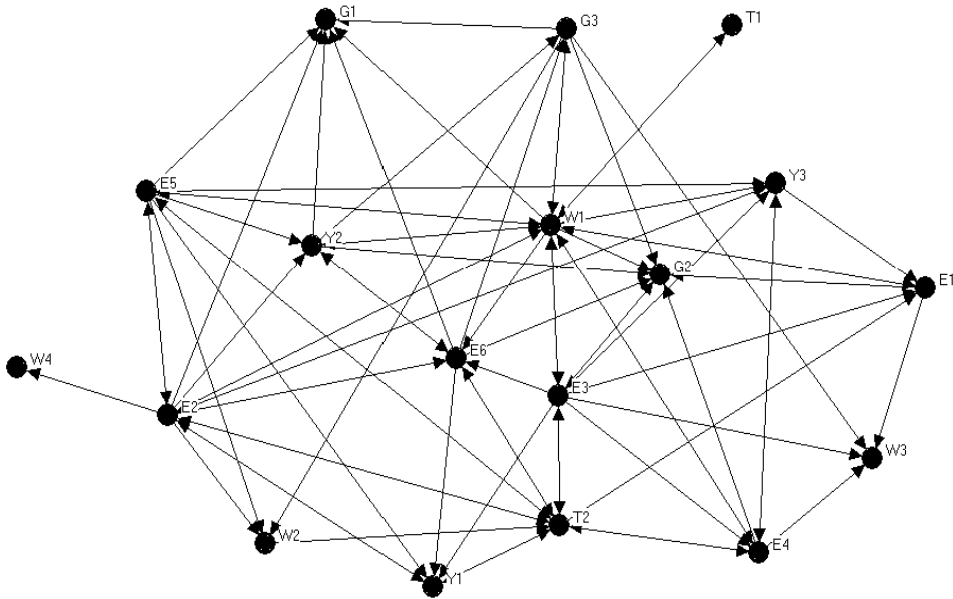
<표 12>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획들

구획	기관수	기관명
1구획	6개	교육조직1, 2, 3, 4, 5, 기타조직1
2구획	3개	청소년조직2, 교육조직6, 공공조직3
3구획	4개	공공조직2, 사회복지조직1, 3, 청소년조직1
4구획	5개	사회복지조직2, 4, 청소년조직1, 공공조직1, 기타조직2

구획들간의 긴밀한 정도를 나타내는 밀도관계를 살펴보면, 2구획간 이루어지는 정보교환과 1구획에서 3구획으로 이루어지는 정보교환의 밀도가 0.667로 가장 높았다. 이는 2구획간 내부 정보교환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포함한다. 이는 교육조직6, 공공조직3, 청소년조직2가 강서구 전체를 포함하는 활동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구획에서 3구획으로(0.500), 3구획에서 1구획으로(0.458) 정보교환의 긴밀성이 나타나 일정한 방향성을 갖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13>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획간 밀도

발신 \ 수신	1구획	2구획	3구획	4구획
	1구획	0.133	0.222	0.667
2구획	0.000	0.667	0.500	0.400
3구획	0.458	0.250	0.250	0.050
4구획	0.200	0.067	0.000	0.150



E1-6:교육조직 W1-4:사회복지조직 G1-3:공공조직 Y1-3:청소년조직 T1-2:기타조직

<그림 2> 교육복지사업 조직간 정보교환 네트워크 관계망

나. 클라이언트 의뢰 네트워크 관계 양상

클라이언트 의뢰 네트워크의 경우 1구획은 교육조직1, 3, 4와 공공조직1이 포함되어 밀접하게 나타났다. 2구획으로 교육조직 2, 5, 6이, 3구획으로 청소년조직1, 2, 3과 기타조직1, 2, 사회복지조직1이 포함되었다. 사회복지조직2, 3, 4와 공공조직 1, 2는 모두 4구획으로 수렴되었다. 클라이언트 의뢰 네트워크의 경우 동일한 조직('끼리 네트워크')간의 긴밀한 경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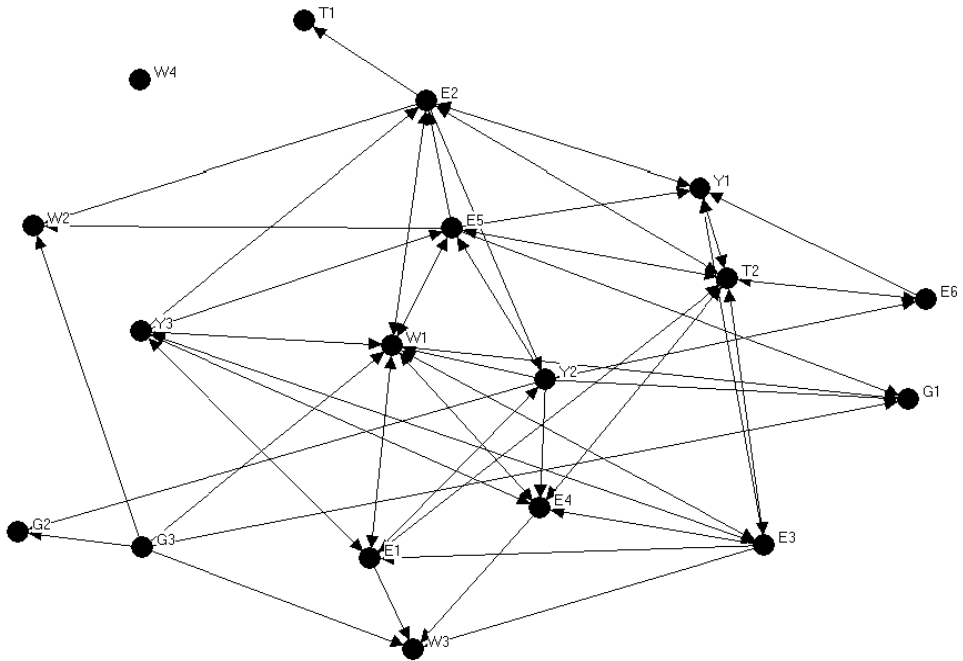
<표 14> 클라이언트 의뢰 네트워크 구획들

구획	기관수	기관명
1구획	4개	교육조직1, 3, 4, 공공조직1
2구획	3개	교육조직2, 5, 6
3구획	6개	청소년조직1,2,3, 기타조직1, 2, 사회복지조직1
4구획	5개	사회복지조직2, 3, 4, 공공조직1, 2

클라이언트 의뢰 네트워크의 구획간 밀도의 경우 2구획에서 3구획으로(0.611) 높았으며, 3구획에서 2구획(0.556)의 방향도 역시 밀도가 높아 2구획과 3구획간의 클라이언트 의뢰를 위한 네트워크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조직 2·5·6과 사회복지조직1, 청소년조직1·2·3, 기타조직1간의 클라이언트 의뢰가 밀접하게 이루어져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음을 반영한다. 반면 1구획과 3구획도 이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사회복지조직이 대거 포함된 4구획은 클라이언트 의뢰 네트워크에서 밀접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15> 클라이언트 의뢰 네트워크 구획간 밀도

발신	수신	1구획	2구획	3구획	4구획
	1구획	0.167	0.000	0.458	0.350
2구획	0.000	0.167	0.611	0.200	
3구획	0.417	0.556	0.167	0.100	
4구획	0.000	0.000	0.000	0.000	



E1-6: 교육조직 W1-4: 사회복지조직 G1-3: 공공조직
 Y1-3: 청소년조직 T1-2: 기타조직

<그림 3> 교육복지사업 조직간 클라이언트 의뢰 네트워크 관계망

다. 자원교환 네트워크 관계 양상

<표 16> 자원교환 네트워크 구획들

구획	기관수	기관명
1구획	7개	교육조직1, 2, 3, 4, 5, 기타조직2, 공공조직3
2구획	3개	청소년조직2, 교육조직6, 기타조직1
3구획	5개	사회복지조직1, 2, 3, 청소년조직1, 3
4구획	3개	사회복지조직4, 공공조직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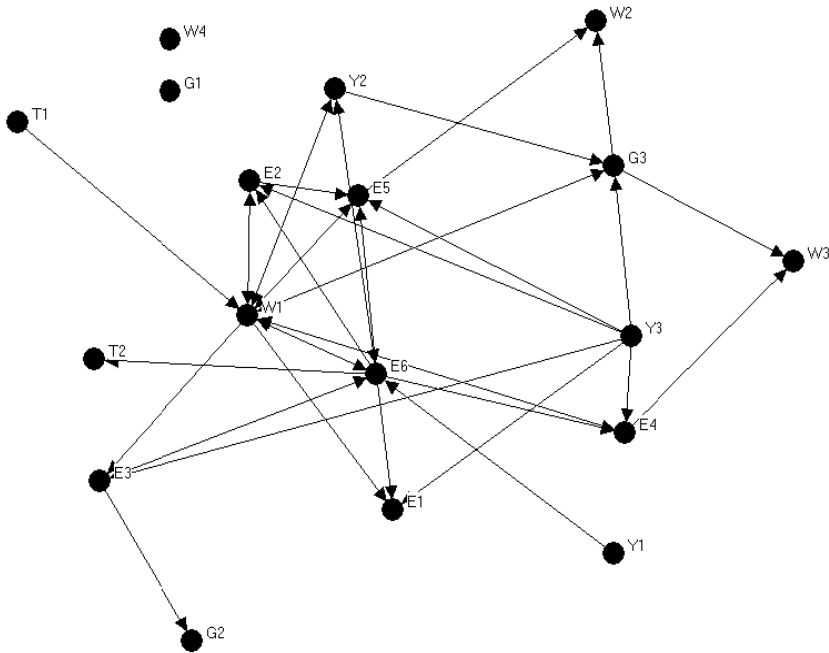
자원교환 네트워크의 경우 <표 16>과 같이 1구획에 교육조직1-5와 기타조직2, 공공조직3이 포함되어 교육조직이 중심적으로 수렴되었다. 3구획은 사회복지조직 1-3이 포함되었으며, 사회복지관과 유사한 청소년조직3과 청소년조직1이 포함되어 직접 서비스제공 기관 중심으로 수렴된 것을 볼 수 있다. 자원교환에 실질적 역할을 거의 하지 않는 사회복지조직4와 공공조직1, 2는 4구획으로 수렴되었다.

자원교환 네트워크 구획간 밀도의 경우 앞의 정보제공이나 클라이언트 의뢰 네트워크 구획간 밀도

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보를 제외한 인적 자원이나 물질 자원의 교환 자체가 취약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자원교환은 3구획에서 1구획(0.343)과 2구획에서 1구획(0.333)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특히 2구획의 경우 발신 밀도가 전반적으로 높아 자원교환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4구획의 경우 모든 구획과의 밀도가 0으로 나타나 자원교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자원교환 네트워크 구획간 밀도

발신 \ 수신	구획			
	1구획	2구획	3구획	4구획
1구획	0.024	0.048	0.229	0.048
2구획	0.333	0.333	0.200	0.000
3구획	0.343	0.200	0.000	0.000
4구획	0.000	0.000	0.000	0.000



E1-6: 교육조직 W1-4: 사회복지조직 G1-3: 공공조직
 Y1-3: 청소년조직 T1-2: 기타조직

<그림 4> 교육복지사업 조직간 자원교환 네트워크 관계망

라. 공동사업 네트워크 관계 양상

공동사업 네트워크의 경우 1구획은 교육조직1 5와 기타조직1이 포함되었다. 이는 교육조직간 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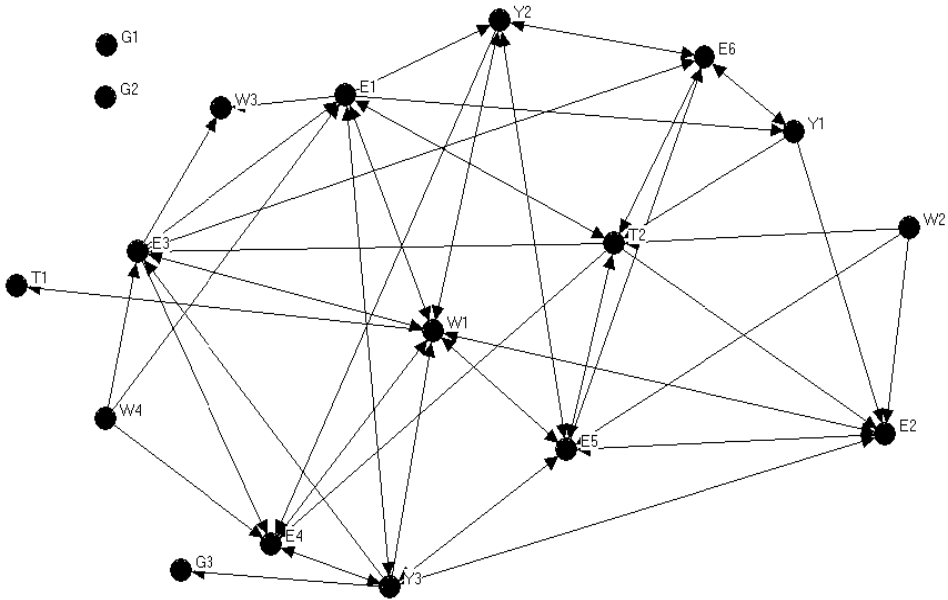
간의 공동사업을 많이 수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구획의 경우 청소년조직2, 교육조직6, 공공조직3과 같이 강서구를 포괄하는 조직들이 중심이 되었다. 3구획의 경우 사회복지조직1, 3과 공공조직2, 청소년조직1이 포함되었으며, 4구획은 사회복지조직2, 4, 청소년조직2, 공공조직1, 기타조직2가 포함되었다.

<표 18> 공동사업 네트워크 구획들

구획	기관수	기관명
1구획	6개	교육조직1, 2, 3, 4, 5, 기타조직1
2구획	3개	청소년조직2, 교육조직6, 공공조직3
3구획	4개	공공조직2, 사회복지조직1, 3, 청소년조직1
4구획	5개	사회복지조직2, 4, 청소년조직2, 공공조직1, 기타조직2

<표 19> 공동사업 네트워크 구획간 밀도

발신 \ 수신	수신			
	1구획	2구획	3구획	4구획
1구획	0.100	0.000	0.133	0.280
2구획	0.000	1.000	0.083	0.600
3구획	0.000	0.250	0.067	0.133
4구획	0.600	0.700	0.033	0.150



E1 6: 교육조직 W1 4: 사회복지조직 G1 3: 공공조직
 Y1 3: 청소년조직 T1 2: 기타조직

<그림 5> 교육복지사업 조직간 공동사업 네트워크 관계망

<표 19>와 같이 공동사업 네트워크 구축간 밀도가 가장 높은 것은 2구획내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사업 네트워크로 1.00으로 나타났다. 4구획에서 2구획으로 이어지는 공동사업 네트워크의 긴밀성이다(0.700). 즉, 공공조직2와 사회복지조직1, 3 그리고 청소년조직1이 교육조직1-5, 기타조직1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구획에서 4구획(0.600), 4구획에서 1구획(0.600)의 경우도 높게 나타났다. 4구획의 경우 비교적 모든 구획으로부터 공동사업 네트워크를 수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원 대상아동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안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관련 조직들 간의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형식적인 구축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담당자들 간의 보다 긴밀하고 구체적인 소통을 통해 언제나 어디서나 대상아동 및 가족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인 지원망으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행 시범사업의 평가는 그 핵심 전략인 네트워크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본 연구자의 접근이 가장 수월한 가양지역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관련 조직간 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에 따라 검증된 결과들 가운데, 분석된 네트워크의 특성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조직에 소속된 담당자가 학교복지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계한 경험이 있는 상대 조직 수는 평균 5.67개이며, 연계 사업 수는 평균 11.83개로 나타났다. 시범사업기간이 이제 2년을 경과한 사실을 감안하면, 조직간 연계의 정도가 비교적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조직간 연계정도가 가장 높은 5순위 이내 프로그램은 집단상담, 문화·예술체험, 멘토링, 개별상담, 사업평가의 순으로 나타났다으며, 연계정도가 가장 낮은 프로그램은 특수아동의 사회통합지원, 도서관운영활성화, 학력증진 방학캠프, 학교 내 CA활동지원, 특기적성교육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계된 사업의 영역이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문화영역의 연계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표 4에 근거>)은 문화활동 관련 인프라가 지역의 특성상 부족하고 몇 개 없는 문화관련 조직들과의 연계마저 부족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네트워크의 취약한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더욱 확대될 주5일제 수업을 감안한다면, 지역사회 문화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CA활동지원 프로그램, 캠프 등을 홍보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참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특수아동의 사회통합 지원프로그램의 연계가 가장 낮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특수아동 및 가정의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특수교육기관, 정신·의료기관, 사회복지관, 문화단체 등과의 보다 전문적인 연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실제로 연계한 내용 가운데 공동사업 33.3%, 정보교환 26.3%, 대상자 의뢰 21.7%, 자원교환 17.7% 순으로 공동사업과 정보교환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더구나 공동사업에 있어서도 공동사업의 계획이나 평가보다는 공동사업 수행에 집중되어 있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

내외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대부분의 사회복지조직간 네트워크의 특성은 정보교환을 중심으로 하는 초보적 형태의 네트워크가 주를 이루고 있다(김재환, 2004)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지역의 네트워크는 정보교환 수준에서 벗어나 공동사업 추진의 형태로까지 발전하였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직간 연계를 맺는 방법에 있어서도 전화·휴대폰, 방문·면담, 공문·팩스의 순으로 나타나 공문을 중심으로 하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지리적으로 조직간 비교적 근거리에서 위치하고 있으며, 교육복지사업 예산(조직 당 평균 2억 7천만원)과 전문인력(조직 당 상근인력 평균 4.7명, 대학원 이상 학력 66.7%, 실무경력 평균 3.3년)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는 사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와 프랭클린과 스트리터(1995)의 이론에 근거하여 현재 이 지역에 구축된 네트워크의 특성은 협력단계의 발전과정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담당자의 네트워크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77점(5.0점 만점)으로 측정되어 자신들의 연계 활동에 대하여 다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고, 연계의 핵심 인력인 프로젝트 조정자와 사회교육전문가의 해당 조직 내 지위가 강화되고 업무 조건이 향상된다면, 이들의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네트워크의 밀도가 높은 상위 7개 조직으로는 공공조직1, 사회복지조직2, 청소년조직1, 공공조직2, 교육조직5·4·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가 특정 조직의 유형에 치우쳐 유유상종하거나 특별하게 소외되는 조직이 없이, 비교적 다양한 조직 간에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김영삼, 2003; 한국교육개발원, 2004a)의 결과들과는 상반된 것으로서 시범대상 지역의 차이 또는 연구접근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후속연구에서 이 지역에서 네트워크 구축의 결정 요인이 무엇인가에 관한 사례연구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다른 지역에 중요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후속연구에서 이 연구와 동일한 설계를 가지고 다른 시범지역의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이 연구의 결과와 비교한다면,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변수들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네트워크의 중심도(다선중심도·근접중심도·매개중심도·위세도)를 산출한 결과, 네트워크의 중심조직은 사회복지조직1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조직1은 과거 7년 이상 지역사회 중심의 학교사회복지를 전개해 온 기관으로서 학교사회복지 전담 실무자들이 가족복지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특성(특히 이 지역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정 비율이 약 60%)과 해당 학생 및 가정의 복합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왔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학교에 찾아가 실시되고, 평가되는 등 교사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연계에 앞장서 왔다. 따라서 다른 어떤 조직보다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이 기관이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다는 결과는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특기할만한 사실은 네트워크의 중심도에 있어서 발신이 높은 조직들은 사회복지조직이나 청소년조직과 같이 아동·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기관이 많았던 반면에, 수신이 높은 조직들은 교육조직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교육조직들의 매개중심도가 높게 나타난 사실도 일관된 현상을 검증하고 있다. 즉 학교와 같은 교육조직이 시범사업의 창구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의 정보에 관련한 네트워크의 핵심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정보교환 네트워크에 있어서 역시 교육조직간 정보 공유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네트워크의 매개중심도 산출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교육조직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다른 조직들이 네트워크에서 일정한 방향(발신)으로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계 양상은 공동사업 네트워크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교육조직간 상호 공동사업을 많이 수행하기 때문에 이들의 연계가 긴밀하게 나타났으며, 다른 조직들도 일정한 방향으로 긴밀한 연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클라이언트 의뢰 네트워크에서는 ‘끼리 네트워크’를 발견할 수 있다. 즉 클라이언트를 의뢰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유형의 조직간 네트워크가 긴밀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정보를 제외한 자원의 교환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자원교환 네트워크의 밀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정보교환과 공동사업에서의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은 앞에서 분석한 네트워크의 과정적 특성파도 일치한다. 앞으로 공동사업에서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동사업의 계획과 평가의 중요성을 보수교육 등의 기회를 통해 인식시킬 필요가 있으며, 특히 평가와 관련해서는 직접 아동을 만나고 가장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해 온 사회교육전문가의 업무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 운영협의회에 모여 자신들의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실제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만이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다음 단계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피드백을 줄 수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클라이언트의 사생활과 인권이 침해되지 않고 의뢰에 대한 책임이 확보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상호 클라이언트 의뢰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사업 재정에 있어서 중앙정부간,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분담을 통한 연계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자원교환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2003.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의의와 추진방향』.
- 교육인적자원부. 2004.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길잡이』.
- 구인회. 2003.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가족구조와 가족소득, 빈곤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김영삼. 2003.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의 현황”. 청소년자활지원관세미나자료집.
. 2004.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추진체계 평가와 전망”. 교육복지정책포럼 자료집 2.
- 김용학. 2004. 『사회연결망분석』. 서울: 박영사.
- 김원찬. 2005.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 어떻게 하나?”. 『교육정책포럼』 101.
- 김인숙·신은주·김혜선. 1999.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네트워크 모델 개발”. 『한국가족복지학』 3: 63-89.
- 김인숙·우아영. 2003. “부천지역 여성복지관련 조직의 네트워크 구조와 특성”. 『한국사회복지학』 53: 179-207.
- 김재환. 2004. “자활후견기관간의 네트워크 특성과 네트워크 중심성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김정식. 2005. “빈부의 양극화 해결은 교육으로부터”. <http://edpolicy.kedf.re.kr/Trend>.
- 류연규·최현규. 2003. “우리나라 아동빈곤율 수준과 변화 경향: 1982~2002년 도시근로자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6: 147-165.

- 박은미·장신재. 2005.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지원현황 및 생활실태". 2005년도 한국아동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백종만·홍경준. 2001. 『전북지역 실업극복 민간네트워크 연구』. 서울: 나눔의 집.
- 강서교육청. 2005. 『강서지역의 교육복지사업 방향성 모색』.
- 연합신문. "빈곤층 500만명 넘어선 듯". 2005년 5월 26일.
- 이소희·도미향·정익중·김민정·변미희. 2005. 『청소년복지론』. 서울: 나눔출판.
- 이인재. 2003. "저소득층청소년빈곤정책에 관한연구". 청소년자활지원관세미나자료집.
- 이현주. 1998. "사회복지조직 구성원의 조직간 관계: 장애인복지 관련조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이현주·강혜규·이윤경. 2000. 『지역단위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 연계체계 모형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혜영. 2002. "도시 저소득층의 교육복지 실태와 과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 _____. 2003. "교육복지정책". 『2002 한국교육평론』.
- _____. 2005.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의의와 향후 과제".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이혜원. 2002. "결식아동 지원조직간 서비스 연계망(network)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9: 190-224.
- 정순돌. 1997. "오스틴 노인그룹 서비스 기관들의 관계망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1: 441-458.
- 정순돌. 2001. "재가노인을 위한 사례관리 네트워크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46:401-426.
- 통계청. 2005. 『2005년도 1분기 가계수지 동향 조사』.
- 한국교육개발원. 2003.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지역사회교육전문가워크숍자료집』.
- _____. 2004a.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내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협력 실태 조사 연구: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 _____. 2004b.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내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협력 실태 조사 연구: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 한인영·홍순혜·김혜란. 2004. 『학교와 사회복지실천』. 서울: 나눔출판.
- 홍경준. 2000. "실직관련 민간비영리조직간 관계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의사소통 관계와 실직관련활동의 전개양상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15: 267-290.
- 홍경준. 2002. "전주지역 자활 관련 조직들의 네트워크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9: 7-33.
- 홍봉선. 2004. "우리나라 교육복지의 방향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학』 56(1): 253-282.
- Allen-Mearns, P. 2004. *Social Work Services in Schools* (4th ed.). MA: Pearson Education, Inc.
- Franklin, C. G., and C. L. Streeter. 1995. "School Reform: Public Schools with Human Service." *Social Work* 40: 773-782.
- Knoke, David, and James Kuklinski. 1982. *Network Analysis*. Beverly Hills, Ca. : Sage publication.
- NASW. 2002. *NASW Standards for School Social Work Services*. Washing, D.C.: NASW.
- Streeter, C. L., and D. F. Gillespie. 1992. "Social Network Analysis." *Administration in Social Work* 32: 201-222.

- Van de Ven, A. H., and D. L. Ferry. 1990. *Measuring and Assessing Organizations*. New York: A Wiley-Interscience Publication.
- Wasserman, S., and K. Faust. 1994.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 and Analysis*. Cambridge Press.
- Wasserman, S., and J. Galaskiewicz. 1994. *Advances in Social Network Analysis*.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
- Woodard, K. L., and P. Dorian. 1994. "Utilizing and Understanding Community Service Provision Network: A Report of Three Case Studies Having 583 Participants."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18(3): 1-41.

A Study on the Inter-organizational Network of the School Social Work for the Children in Low-income Families

Lee, Hye-Won
(Sung Kong Hoe University)

Woo, Soo-Myoung
(Sung Kong Ho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structural and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inter-organizational community network of the school social work and the characteristics of direct workers and the school social work organizations delivering services to the children in low-income families ,and to identify the magnitude of efficient structure for networking for the children living in Kayang-dong. By searching out the central organization and block modeling, this study attempted to show the characteristics of inter-organizational community network for the children. The research sample was 18 organizations, and the data were collected by a survey questionnaire and analyzed by SPSSWIN 12.0 and UCINET 6.29. The main results show that the social welfare organization is the central organization in almost every dimensions(information exchange, client referral, cooperation, resource exchange) and education organizations play an important role in betweenness centrality. Also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present developmental stage of the network is collaboration.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implications for the future practice are discussed.

Key words: school social work, network,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structural characteristics, centrality.

[접수일 2005. 6. 3 게재확정일 2005. 7. 19.]